

제 143 호

연중 제 21주일

1975. 8. 24.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498)

□강 론□



전 인격적인 신앙고백을!

아 태 주 신 부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그 당시 백성의 분분한 견해를 우리는 복음 성서에서 발견한다. 오늘 복음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오인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제자들의 대표에 의한 것으로, 제자로서의 생활 전체를 걸쳐 놓은 결정적인 신앙고백이었다.

벌써 한 세기 전에 니이체는 「신이 죽었다」고 했으며 또 오늘날에 와서 샤르트르는 「신은 존재하지 않고, 또 어디까지나 그런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한다. 사실 여 러가지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에 휩쓸려 욕심에 눈이 어 두어가며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마치 하느님이 없는 것 처럼 행동하거나, 이제 하느님을 얻을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과 사조를 현실 에서 마주하고 있는 우리로써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하 느님의 아들이라고 신앙고백함으로써 성세성사를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지 않을수 없으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 지 않을 수 없다. 이론적인 반대나 부정은 안 할 망정 실 제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하느님을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일을 자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일 신자”로써 미사에 마지못해 참석하여 그나마도 지루하게 여기며, 미사시간 동안 하느님 생각은 않고 제 생각만을 한다. 때때로 하 느님께 기도를 했다면, 무슨 위험이 들어닥치거나 무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느님을 극히 편리한 어떤 기계처럼 만들어 버리는 우리 행위는 곧 하느님을 부정하는 자들과 함께 실천에 있어서 동조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대한 문제는 울 바로 하느님을 보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 말씀 하시기를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 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하셨다. 우리가 하느 님을 울바로 보고, 자기생활 전체를 걸쳐 놓은 결정적 인 신앙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가까이 가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생활이 복음으로 생활화된 실 천적이고, 행동화된 신앙생활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을 기해서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 도록 다시한번 하느님의 은총에 기대며, 용기와 힘을 다 하자. 이기적이고, 폐쇄적이며, 근시안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웃에게 기쁨의 미소를 주는 생활한 신앙인으 로써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의 전 인격적인 신 앙고백이 이루어질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에 넘쳐 있으 리라.

(함열 천주교회 보좌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입당송** 주여 귀를 기울이시어 들어 주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 중, 주여 살려주소서. 밤낮으로 당신께 부르 짓고 있어오니, 주는 나의 하느님, 어여삐 여기소서.

(2) 말씀의전례

□**제1독서** (이사야 22, 19-23)

그 어깨에 다위 가문의 열쇠를 메워주리라.

□**증계송** ◎주여 너그로우심이 영원하시오니, 손수 하 신 당신일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 마음 다하여 야훼님 기리오리다/천사들 앞에서 당 신께 노래하오리다/성전 앞에 엎드려 전하리이다.

□**제2독서** (로마 11 : 33-36 성서 p 361)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그 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 여 있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너는 베드로다/내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의 힘도 감히 누르지 못하리 라.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6 : 18-20 성서 p39)

너는 베드로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내게 맡기리라.

□신자들의 기도

1. 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성 교회로 하 여급 당신의 뜻에 맞게 한 우리 안에서 사랑의 일치를 이루도록 도와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진정한 자유 안에 지도자는 국민을 위한 정치이며, 국민은 신뢰안에 밀는 상호관계 안에 발전할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3. 다가오는 아오스팅 축일을 맞아 길 재덕 아우구스 티노 주교님과 축일을 맞아하는 모든이들을 위하여 비오 니 영육간에 더욱 건강을 주시며 주교님께서는 더욱 양 들을 위하여 봉사하실 수 있도록 은총 주소서 ◎

4. 죽은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비오니 당신의 품에 평안히 거할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 한 생명을 누리고, 내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숲 정 이 산책





성 당 건 축

나 공 열

며칠 전 나는 오랫동안 오솔길을 따라, 고향의 문턱을 들어섰었다. 누구에게나 고향의 풍경은 눈에 익은 것, 얼핏 성림의 숲사이로 예상밖의 교회당 건물이 새로 들어서 있음을 보고 놀랐다. 성림속에 한쪽의 그림처럼 조용히 자리잡은 하얀 건물이 눈부셨고 종각이 높이 솟아 있었다. 기껏 60여명의 신자가 아직 목사님도 모시지 못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본다는 그 교회는, 한 과수원을 빌려 경영하는 녀석치 못한, 한 집사의 유일한 밭 위에 세워진 것이다.

또한 우리 본당의 어떤 공소에서의 일이다. 18년전 오륙경이 뜻을 모아 성당 건축을 목적으로 성미 한두알씩을 거두어 그동안 키워왔고, 그 결과 지금은 아담한 성전에서 교우들이 하느님과 만나고들 있다. 제법 목돈이 될 임지인 빌려준 땅을 내놓지 않은 사며며, 그것을 나누어 가베에 보태쓰자는 일각의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 돈을 킌을 수 없어 지금의 공소를 짓는 것으로 만족하였다고 한다.

생각은 점점 비약된다. 도시의 성당건축은 어떠한 실정인가? 요즈음 우리 교구의 여러 본당에서는 성당 신축 계획이 한창이다. 건축 기금은 대부분 준비된 자금이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마련한다. 본당 신자들의 힘으로 성당을 지으려는 계획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건축자금이 조금이라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 탈일까? 천여명이 넘는 신자수에 비하면 참여의식이 너무나 희박한 것 같다. 회사금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가진분들이 내는 선실이나 생색이 뒤어서는 안되겠다. 어느 교구에 선 구역을 나누어 성당을 신설하고 본당 신부는 자취생활을 하며 신자들은 천막을 치고 미사 참례를 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성당을 건축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다.

과연 이러한 시도가 우리 교구에 가능할까? 이런 의아심은 인간의 마음속에 작용하고 계시는 성령의 움직임이심을 부인하는 일이 아닐까? 성령께서는 돌같이 무뎠던 인간의 마음을 녹여 부드러운 살집장으로 바꾸신다. 한 농부가 피땀흘려 가꾸던 유일한 밭을 교회당 건축에 바친 마음은 살을 에이는 듯한 아픔을 감수하며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봉헌하는 결단이었을 것이다. 이 결단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속에 작용하고 계시는 성령의 것,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빼어주는 쓰라림을 맛보지 못하면서 바치는 헌금은 참다운 봉헌이 아니라

참사회·평신도 대표 합동회의

지난 월요일(8월18일) 가톨릭센터 강당에서는 교구에 산실의를 위한 참사회 신부들과 평신도 대표들의 합동회의가 있었다. 김 주교님과 참사회 신부 8명, 각 본당 사도회장 22명은 장장 7시간 20분동안 교구발전을 속의(熟議)했다. 유감인 일은 고창, 김제, 부안, 수류, 월명동 교산, 주현동, 남원, 진안 본당이 불참한 사실이다.

앞으로 있을 신부 전체회의에서의 최종결정을 위해 모아진 합동회의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미사예물

미사예물은 봉헌자의 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나, 현실의 여려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최저 기준선을 2,000원으로 한다.

(2) 지구조정 문제

교통이 매우 불편한 5지구(무주, 진안, 장계, 임실, 순창, 남원)를 들로 나눈다. (<무진장>과 <임순남>)

(3) 주간 교구보 순정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 자라는 순정이의 보다 건실한 성장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다.

① 본당 소식은 주일에 작성하여 보낸다.

② 본당이 책임져야 할 송료를 완납한다.

(4) 예산 심의

교구 예산은 참사회에서 다루어 진다. 그런데 우리 교구는 제작년도부터 교구 예산심의에 평신도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금년에도 참사회에서 일차 심의한 예산을, 각 지구별로 검토케하여, 다시 참사회와 평신도 합동회의의 의견을 들었다. 이 예산은 최종적으로 신부 전체회의에서 확정되게 된다.

45,386,000원 규모의 예산안을 지구회의에서 검토하고 거기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합동회의에서 의견의 통합을 보았다. 결국 504,000원을 증액시켰는데, 합동 회의에서 의견의 일치된 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 채용하는 사무원의 월봉급액을 30,000원으로 인상 (원안 20,000원)

② 교구청 직원수당을 연 100%에서 200%로 증액

③ 차량비는 원안대로함. 다만, 교구 사무활동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다 더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④ 교구청에 도서실을 설치하여 사제들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1차연도인 내년 예산의 도서비를 200,000원으로 증액(원안 50,000원)

⑤ 본당 순회교육비 330,000원 가운데 150,000원은 소위 취약지구(현행 3지구와 5지구)를 지원하는 교육비로 사용하기로 하여 사출 기초를 변경.

◎ <제단체 보조>항의 목욕(평협 보조비)와 <메스콤 보조비>로 바꾸어, 9월중에 창립될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평협)가 산하단체(예, 대학생연합회, J.O.C 연합회 등)에 주어지는 교구 보조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지도하기로 함.

(※ 참고)

1. 교구 참사회(대표: 교구장)
교구장이 임명하는 개인자격의 사제로 구성되며, 교구장의 행정교문
2.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대표: 평신자)
단위 평신도 사도직 조직체들로 구성되는 평신도들의 협의체로, 조직체들의 활동을 조정·지도하여 교구장을 돕는 협조기관으로, 교구장의 재치권에는 간여할 수 없음.

※ 본당 사도회, 교구단위 액션단체(대학생회, J.O.C, 썸시움, 교리교사회 등), 교구 각 분과위원회로 구성됨.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팝니다

세느의상실

최 로사리오 (춘 자)

전주시 중앙동, 뉴 명보체과 앞

전화 ③ 6219

□양지쪽□

□표미시움 알로꾸시오□



전교의 황금기

김 환 철 신부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지구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아왔는데, 공산주의와 자유 진영의 강대국인 소련의 소유즈와 미국의 아폴로가 우주공간에서 우정의 대화를 나눔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바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염원하는 하느님의 나라도 지상에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일반 세인들은 우주개발이 하나의 과학탄생을 과시하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좀 신학적으로 관찰해 본다면, 하느님의 전능과 하느님의 섭리에 실로 오묘함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애하올 표미시움 산하 간부 여러분! 우리는 지상에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할 사명을 받은 레지오, 즉 성모님의 군대들임을 더욱 의식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지상에 건설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백성들을 많게 하는 방법이 가장 절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구내 신부, 수녀, 평신도 합동으로 「보다 나은 세계」를 이룩하기 위한 공동체 목사회를 가톨릭센터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주재 프롤레스 신부님께서 강론중에 일본에서 15년간 재직중에 교우자녀 2명 영세준 일 밖에 없다는 말씀에 우리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성모님께 봉헌된 나라입니다. 성모마리아는 당신께 바쳐진 나라 우리 조국을 계속 보호해 주시고, 당신 아들 예수님께 항상 전구하고 계심을 여러가지 증거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신이 영광스러이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8월15일에 우리나라에 해방의 광복을 가져다 주셨고, 가까운 월남, 크메르가 공산화되었는가 하면, 중국마저 U.N으로부터 축출을 당하는 비극을 자아냈지만, 가장 공산주의와 가까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신앙을 자유로이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성모님의 안배하심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때가 다르듯이 우리는 이 좋은 시기에 씨를 뿌려서 다가오는 성탄절에 좋은 결실을 거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전교하기에 가장 좋은 황금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영세를 주고 나면 또 예비교우들이 가득 모이게 되니, 우리 레지오간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더 많은 결실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레지오 마리에 지도신부)

요십이 (109) 김병오



개점 1주년 환인판매

삼성 T.V 대리점
삼성 전주 센터

T.V, 냉장고, 전기용품 일절
박영욱(누시아)
전주극장앞구 전화 ② 5893

윤정이 광고료 안내

- 1회 광고료(4cm×5cm) - 1,000원
- 1개월이상인 경우 - 1회 900원
- 3개월이상인 경우 - 1회 800원
(단 광고는 선불해 주시는 광고만 게재합니다)

현대 광고사

*아크릴, 각종간판, 아취, 셀크인쇄

현대 DP사

*칼라흑백사진, 카메라수리

송홍섭(토마스)
전화 ② 9431

삼남극장과 전북신문사 네거리 중간

드레스 미싱 대리점

삼영 미싱상회

<미싱일체>

◎ 태인상회 앞
전화 ② 2827
최경자(테레사)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지사진관(2층)

이상범(필노리아노)
육교길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② 6544

※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길 중앙시장동
(전화 ② 4577)

※ 집단장 청부, 문의 환영 ※

금강 페인트사

<고급도료, 방수액, 흑판등>

전화 ③0876 김테레사
소방서 북편, 결핵협회 옆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신부 전체회의 (8월27일 <수> 10시, 가톨릭센터)
교회발전을 위해 축열을 무릅쓰고 회의하시는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제18차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9월1-3일, 가톨릭센터, 회비 3,000원)
- ※ 아우구스티노 영명축일 (8월28일 <목>)
김 재덕 주교님과 이 상호 신부님, 김 영일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 ◎ 중, 고등학생회장단 회의 : 9. 7 오후 1시30분 가톨릭센터
치명탑 원고 8월31일까지, 마감, 팻지대금 속히 완납 요망
4. 대학생 연합회 35사단 위문 미사 : 그리스도 공동체로써 하계 휴가중 R.O.T.C (중앙대, 숭전대) R.N.T.C (전주, 군산 교육대) 위문미사를 35사단 (에비사단)에서 갖고져 하오니 신자, 예비신자, 일시 : 1975. 8. 24일 낮 12시 (집결장소 전동성당) 준비물 : 즐거운 마음, 200원
일정 : 35사단, 포도원 (날씨에 관계 없음)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 대 권
보좌 신부 김 동 준
사도 회장 김 영 진

1. 75년도 회계년도가 9월 말 까지오니 교무금을 속히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애령회 소식 : 성심당 한약방 이상범 회장 10,000원 회사. 감사 드립니다

(복자)

전화 ② 5238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장 조 성 호

1. 게시판에 공고된 교무금 납부 현황을 보시고 미납자는 9월14일까지 빨리 완납을 요망.
2. 각부에서는 10월 1일부터 집행되는 7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8월말까지 제출 요망.
3. 8월 26, 27일 (화, 수) 미사가 없었습니다.
4. 복자 부녀부 월례회 : 다음주 공식 미사후
○ 지난 주일 미사에 나오신분 <남> 87명 <여> 266명 <계> 353명.
◎ 지난주 성미 1달 4되 누계 180달 8되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 승 천
사도 회장 조 해 형

1. 회계년도 새 예산서를 각 분파에서는 8월말까지 제출 요망
2.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 드립니다.
중앙 : 13,500원 무명 : 10,000원, 5,000원
김차순 : 10,000원 누계 : 38,500원
누계 : 3,979,027원
◎ 신축성미 : 5되, 누계 : 227달 6되.
□성모 승천 봉헌금 : 21,240원
* 축결혼 * 75. 8. 27. 오전 10시
신랑 이용희 군 신부 이 귀례 (비리사다) 양

(서학동)

전화 ② 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이 거 영

1. 각부에서는 1년 에 산서를 다음 주 까지 제출 하셔야 9월첫주에 사도회에서 76년도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2. 9월 말일이 회계년도이나 75년도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전동)

전화 ② 3222 주임 신부 김 한 철
보좌 신부 한 불 섭
사도 회장 이 현 재

1. 주임 신부님 레지오 마리에 전국회합에 참석차 상경
2. 방지거 삼회 : 다음주 오후 1시 30분 있음
3. 75년도 회계년도가 1개월 밖에 안남았습니다. 신입하신 봉헌금을 속히 완납합니다.
◎ 새 성당 대지 신청자 ◎
안애선, 오정숙 : 각 1,000원, 주원철, 김창신, 소씨 서창원, 진경옥, 김대원 : 각 5,000원, 서호만 : 500원
엄익도 : 10,000원, 박순기 : 30,000원. 장광옥 : 15,000원. 김궁열 : 3,000원, 오남이, 김숙희 : 각 2,000원. 이병식 : 20,000원. 선우회 일동 : 36,000원
계 150,500원 누계 : 1,764,380원

(덕진)

전화 ② 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종 환

1. 선거 위원회 회합 : 공식 미사후
2.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에 각 구역 1인 이상 공소 2인 이상 참석 요망.
3. 사도회 각부 신년도 예산안 제출 요망 : 8. 31일까지
□성모 승천 축일 헌금 : 11,310원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부수 신태인 정	축 성가대 발족	4,455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동 등	에비자 환영	47,915원
		성가대 전진 성사 연습	18,100원			각 구역 가정 방문 실시	53,810원
제 2 지구	대 윤명중합	평화의 모후 발족 했음	12,670원	제 4 지구	중 노덕부서	회계 년도 예산안 제출 요망	56,326원
		사도회, 애령회				각 분과 회계 년도 예산 제출 요망	18,335원
제 3 지구	고 금여	예비자 교리 시작	4,660원	제 5 지구	남 원주 임실 장계 안	선거 위원회 회합	9,315원
		우리아, 청년회	35,110원			교무금 납부 요망	16,310원
		카리마스 월례회	22,615원			각부 신년도 예산안 제출 요망	31,935원
		신용조합 월례회	12,440원			봉헌금 속히 완납 요망	
		우리아 월례회	15,755원				
		하늘의 문, L.M 회의	3,945원			영세 준비에 전력을 다함시다	원
		성우회 월례회	7,925원			주일 학교 어린이에게 박수 를 보냅니다	4,765원
		부녀회	15,020원			본당 운영 위원회 (가칭) 첫 회합	원
						테레사회	